

YMCA

설립의 정체(正體)와 지도력, 민족운동 [I]



일 시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YMCA회관 우남 이원철홀(2층)

세부일정

구 분

인사말씀 &
축사 · 축전

세미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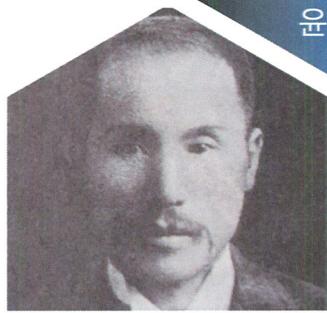
- 인사말씀 · 조규태(서울YMCA 회장)
 - 축 사 · 최재형(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문현(종로구청장)
 - 축 전 · 오세훈(서울특별시 시장)
-
- 기념강연
『서울YMCA 120년 : 역사적 의미와 비전 제언』
☞ 송상현(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명예회장)
 - 발제 1
『윤치호의 기독교사상과 YMCA』
☞ 함재봉(한국학술연구원 원장)
 - 발제 2
『초기 재일본한국YMCA와 지도력 : 초대 총무 김정식을 중심으로』
☞ 김일환(서울장신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 발제 3
『송진우의 삶을 통해 바라본 YMCA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 박찬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발제 4
『삼일운동에서 YMCA의 역할과 의미』
☞ 김정희(한국시민문화학회 학술이사)
- * 좌장 : 김명구(서울YMCA 이사,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소장)



『한국YMCA운동과 민족운동의 산실』
서울YMCA 설립의 초석을 놓은 지도력(Ⅰ)



윤치호



김정식



송진우



함태영



박희도



이갑성

〈사진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기념강연

■ 기념강연

「서울YMCA 120년 : 역사적 의미와 비전 제언」

☞ 송상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명예회장

| 기념강연 |

서울YMCA 120년 : 역사적 의미와 비전 제언

송상현 *

서울YMCA에 거는 기대

폐쇄적 농경사회였던 구한말 아래 한편으로는 이 나라에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조선을 계몽을 통하여 근대화로 이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화를 방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이끌어온 기독교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YMCA는 강제 해산된 독립협회의 뒤를 이어 교회 외곽의 개화 자강을 위한 조직체로 만들어져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민족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보호자이며 협력자였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사로운 말씀을 드려서 퍽 죄송하오나 저희 집안과 황성기독교청년회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의 조부이신 고하 송진우는 일본유학을 가실 때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08년 서울 YMCA에서 영어를 잠시 배우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첫 인연을 가지고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신 후 동경에서 공부하던 당대의 출중한 선각자들과 자주 교유하시던 한국유학생 총본부가 바로 동경 YMCA 회관이었습니다. 이곳을 활용한 한국유학생 중에서 고하의 평생 동지인 백관수 선생이 비밀리에 보낸 송계백 밀사를 중앙학교교장인 고하가 계동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여러 가지 서울과 동경 간에 거사를 위한 내외 호응을 합의한 후 고하는 독립운동 자금과 한글 금속활자를 송계백에게 주어 다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동경의 동지들이 1919년 2월 8일 적국의 심장에 있는 YMCA회관에서 대한독립선언을 감행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잘 아십니다. 고하는 국내 동지들과 2·8독립선언서를 공유하면서 국내 종교지도자들을 연결하여 오래 기획했던 3·1독립운동을 서울에서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국의 대업을 도모함에 있어서 고하는 현상윤, 김성수, 최남선, 최린, 이승훈, 함태영, 한용운 등 천도교, 불교 및 기독교 지도자들과 치밀하게 모의하였고, 서울 YMCA의 학생조직 등의 튼튼한 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명예회장.



원을 받았으니 서울 YMCA가 바로 독립운동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경에 있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 건물이 1923년 동경대지진으로 완전히 불타버리자 당시 최승만 간사가 귀국하여 동아일보 사장인 고하와 건물의 복구를 긴밀하게 상의하셨습니다. 고하의 지휘하에 충분한 국내 모금을 달성하여 마침내 동경의 청년회관이 완전 복구된 일도 있습니다. 고하는 일제시대에 YMCA를 이끌어오신 월남 이상재 선생과 좌옹 윤치호 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모시면서 그 혹독한 일제시대에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농촌강습소 개소운동, 문맹퇴치운동, 신간회운동 등 다양한 활동에 언론과 함께 앞장섰습니다. 고하는 국내에서 정부도 없던 시절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아니한 채 동아일보를 짚어지고 민족의 자강과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몰래 독립자금을 보내고, 한인지역사회에서 발간하는 지역신문에 필요한 한글 급속 활자를 보내는 동시에 조그마한 배일 활동도 모두 동아일보에 크게 홍보함으로써 민족정신을 고취했습니다. 고하는 신흥우, 유억겸, 김활란, 서재필 선생 등과 함께 하와이 그리고 나중에 교토에서 열린 범태평양회의에 참석하신 일도 있습니다. 하와이 회의에서 1925년 이승만을 만나 그의 망명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해외 독립운동은 박사께서 주도하시고 국내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우양 허정, 용재 백낙준, 해위 윤보선 등 YMCA지도층과 깊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김명구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님의 덕택에 이제는 서울 YMCA의 평생회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YMCA가 추진해온 농촌운동, 청소년운동, 사회체육운동, 평생교육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국제협력운동 등 수많은 애국애족운동의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앞으로 서울 YMCA의 커다란 자산이 되고 장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 나라를 공산 독재로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음에 더 주목합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후진적인 온 나라가 공산주의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많은 국민이 공산 사상의 달콤한 환상에 취해갔습니다.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해방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중심을 잡아 준 기독교의 공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집단의사결정을 함에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는 세대입니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자유사상은 집단보다 개인에 중점을 두고 헌법과 자유권에 기초한 보편적 인간 평등을 전제하며, 진리를 포착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과학적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봉하는 자유주의가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좌우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좌파는 부와 권력의 광범위한 재분배, 인종과 젠더의 평등, 집단간 결과물을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비

하여 우파는 왕왕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법원과 사법체제, 직업적 관료제, 독립적 언론, 경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 권력 등 자유주의의 핵심제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말고, 극단으로 치닫는 자유를 적절히 자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 때에도, 제1차 대전 무렵 민족주의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환경보존이나 남녀평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를 너그럽게 포용하면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도 동일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리주의와 가짜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훼손시킵니다. 만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권·법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 YMCA가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지킴이 노릇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말경 서울 YMCA의 역사잇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기회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역사가 몹시 왜곡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운동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착수했던 바이나 당시에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건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친일파 논란과 이념논쟁이 증폭되었고, 보수층의 강한 저항을 유발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 운동의 추진에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란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 그리고 올바른 미래 역사의 계승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과 역사바로보기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역사를 왜곡함은 한국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 학문, 국가 이념, 민족정신, 통치 철학 등 모든 정신적 토대가 비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까지 뒤틀려서 국가민족의 장래가 암담해집니다. 역사는 현재를 아는 거울이며 내일의 길을 여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도 가치의 혼란과 아울러 젊은이들의 불평불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가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물려주고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거짓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 이스라엘과 비교가 됩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은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일찍이 확립되어 어느 나라에 살던지 간에 민족적 자긍심을 지닌 채 각 분야마다 강한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정체성을 정립하고 젊은이들에게 민족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최근의 성취를 올바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현장과는 달리 진실의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시급한 정책과제입니다.

19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이 망한 것은 국가 혼이 없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가 혼은 누가 길러 주나요? 올바른 역사가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은 정신혁명이고 문화운동입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는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랑스럽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대사인 고구려와 발해의 찬란한 역사는 이웃나라가 무지막지하게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펼쳐진 역사 속에서는 근현대사 특히 1919년 이래의 항일독립운동사 및 해방전후사 그리고 한국동란사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몰각 또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놈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식민지시대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당시 2천만 조선 민중 거의 모두가 희생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는 마치 일부 소수의 지도자나 한 두 개 집단의 노력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처럼 현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5년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하는 1919년 3·1운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누가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의 연합을 이루어 냈습니까? 국내중심세력이 단합하여 일으킨 위대한 3·1운동의 결과로 중국에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우리민족의 독립을 향한 외침이 전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아시는 바입니다. 국내적으로 3·1운동은 나와 가정보다 민족정신을 눈뜨게 해주었고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야말로 한민족 의식 전환의 심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사 중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고 민족정신을 깨우친 일대 사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3·1운동이 일어난 해부터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 빛나는 3대 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3·1운동 외에 1926년 중앙학교 중심의 6.10만 세사건 그리고 1929년의 광주학생사건을 말합니다. 이 모든 만세운동은 3·1운동의 배후 주역인 고하 등 국내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을 갖고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민족의식이 배양된 젊은 학생들이 그분들의 비밀 지원을 받아 일으킨 운동입니다. 3·1독립운동이라는 구국의 대

업을 도모한 국내주역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일제에 의하여 자행된 탄압과 감시와 고문아래에서도 꿋꿋이 지조를 지키면서 눈을 부릅뜨고 백성과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온갖 탄압과 감시 속에서 나라를 지킨 독립지사들에 대한 평가가 생략, 축소, 차별 또는 왜곡되는 등 너무 소홀합니다. 해외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국내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너무나 혹심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한국동란 당시의 멸실 때문에 거의 기록이나 자료조차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민족정기를 꾸준히 살리면서 광복 시까지 온갖 저항 끝에 탄압을 이겨낸 국내독립운동인사에 관한 전면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해방전후사나 대한민국 건국사는 많은 부분이 저희 집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비록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어린 나이이지만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많은데, 예컨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보면 얼토당토아니하게 기록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공산당의 본질을 모르고 그쪽에 부화뇌동한 사람을 모두 남북통합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한 애국자로 미화하여 훈포장을 남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중도노선을 지향한답시고 해방 당시에 평양을 열심히 드나들던 한 중진정치인이 40년 후에 쓴 회고록에서 자기의 최측근이 북한의 간첩이었음을 그때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기회주의적 중간노선을 취하지 안했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식견이 모자란 소위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해방정국을 무질서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발자취를 이제는 제대로 밝혀서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지도자가 다 모여서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대책을 논할 때에 모두들 짚신감발에 죽창을 들고서라도 현실권력인 미군정을 싸워서 쫓아내고 즉각 독립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아니한 비현실적, 감정적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에 신탁통치를 결정했다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통신문을 읽어본 유일한 참석자인 동아일보 사장 고하 송진우가 정확한 사실을 전하면서 신중하게 반탁할 것을 주장했더니 그 즉시 찬탁 인사로 몰렸고 그 다음날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하의 암살 배후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해방 당시의 여러 암살사건은 거의 다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격동의 해방정국에서 분출하는 복수심과 망국에 대한 추궁의 심리 속에 모두가 애국자처럼 외치는 동안 이미 이성은 문제해결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이 남침한 것이 한국동란이거늘 남한의 북침설을 주장하는 소위 학자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득세하더니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많은 기밀문서를 보고 나서는 북침설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되고 역사의 혼란을 가져왔습니까? 이제는 한국을 연구한다는 어느 미국 학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남침이든 북침이든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동란에서 흘린 유엔군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처럼 허리멍덩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이고 우리 생전의 일인데 최근의 역사는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너무 왜곡이 심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여러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여과 없이 전달 되었고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의 중견 세대는 올바른 한국의 최근세사를 전혀 모른 채 졸업했습니다. 사실 한국 현대사 70여 년은 남들이 수백 년 걸쳐 만들어낸 변화를 압축해서 성취한 기간입니다. 압축적이다 보니 비동시적 요소가 공존보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장기적 평화, 고통스러운 가난과 기적적 경제성장, 좌절과 성취의 모든 국면이 압축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다만 역사를 올바로 정립함에 있어서는 연령 효과, 시대 효과 등에 따라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개인 경험과 기억이 다르므로 역사를 매우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경험과 기억의 차이는 세대간 극단적으로 다른 경험의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존하는 각 세대가 사실상 전혀 다른 기억의 단층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연결사회인데도 세대간 차이는 더 벌어져서 심지어 쌍둥이도 세대 차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는 끊임없는 세대교체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들의 활력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이 물려준 이 귀중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왜곡, 망각, 멸실되어 가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꼭 바로잡아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합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할 때에는 일제의 가공할 잔인성과 비인간성 등 그들의 죄상폭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좀더 근원적으로 왜 우리가 식민지 침탈의 희생이 되었는가 자성의 목소리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이처럼 망국의 책임이 제대로 구명되지 않으면 심지어 광복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라고 착각 속에 미화하고 과장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약이고 혀구인데 모든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온갖 반대와 이견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세계적 경험에 비추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권위주의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일찍부터 기독교로부터 배운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919년 3·1 독립운동의 시점부터 미완성교향악처럼 남아있던 정치적 사상적 혼란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 그리고 정의가 관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역사의 정립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YMCA가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강연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명예회장)

서울YMCA
창립 120주년 기념 세미나